

한국 신문 속 명명하기의 수사학

승부수 언어(ultimate term)로서의 '국론 분열'의 사회구성적 의미*

남궁은정**

(경희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신성진***

(경희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이인희****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신문에서는 사회의 커다란 갈등이 생겼을 시 '국론 분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 말은 매체 속에서 사회적으로 특정한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맥락적인 언어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국론 분열'이라는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이 단어가 특정한 상황을 명명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 내의 최고 위계를 갖는 사회적 단어인 승부수 언어라는 점에서 '국론 분열'의 쓰임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세계, 중앙, 문화, 동아, 서울, 국민, 한국, 경향, 조선, 한겨레 등 총 10개의 주요 일간지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신문에서 나타나는 '국론 분열'이라는 단어의 텍스트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 은유와 등치된 단어들의 빈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각 신문에서 지칭한 '국론 분열'적 사건과 '국론 분열'의 주체를 찾아 빈도를 측정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론 분열'은 병, 재앙, 비유의 은유로 주로 표현되고 있었으며,

* 본 논문은 2008학년도 BK21 '갈등과 커뮤니케이션'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2007년 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 발표된 것을 정리, 보완한 것이다.

** ej_namgung@hotmail.com

*** paistedrum@hotmail.com

**** ihlee@khu.ac.kr

이에 대한 태도나 제시하는 대처행동은 부정적이면서 수동적이었다. 둘째 ‘국론 분열’은 국정, 국가적 손실, 사회문제, 이념 등과 같은 단어들과 같은 위계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국론 분열’적 사건과 ‘국론 분열’의 주체는 각 신문사마다 각기 다르게 지칭되어 신문사에 따라 승부수 언어를 다르게 의미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승부수 언어는 참여자들과 기존 행위자간의 권력 불균형을 만들고 일부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시킨다는 점에서 수사적 힘을 갖게 된다는 논의 또한 이뤄졌다.

주제어: 승부수 언어, 명명하기, 프레이밍, 수사학

1. 서론

신문지상에서 ‘국론이 분열되었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분열(分裂)’이라는 말은 ‘갈라서다’, ‘나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론 분열’은 사회의 큰 이슈가 서로 양분되어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사용된다. 이러한 ‘국론 분열’이라는 말에는 일종의 위기감이 서려 있다. 그리고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일으켜 이 이슈에 주목을 하게끔 만든다.

미디어에 등장하는 이 말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미디어가 사회적인 현실을 구성한다는 점 때문이다(Tuchman, 1978/1995). 미디어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과 밀착되어 있으며 현실을 선택적으로 주목, 지각, 해석하는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디어의 효과 자체가 수용자들이 미디어에 의해 현실을 구성하게 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여겨지기 까지 한다(최용주, 2003).

그렇다고 해서 미디어에 의해 구성되는 현실이 온전히 왜곡된 것이거나 거짓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관행을 통해서 현실을 나름대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가 왜곡을 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미디어가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즉 ‘미디어가 갈등을

국론 분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왜 언론에서는 국가의 주요 사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의견 대립 혹은 의견 수렴 과정' 등과 같이 표현하지 않고 '국론 분열'이라고 표현하는가"를 고민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론 분열'이라는 표현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과 공명을 이루어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전의 연구에서 보면 사회의 갈등 문제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의 갈등 보도는 심층적이며 복잡한 갈등을 두 집단 사이의 대립으로 단순화시킨다(거나, 양정혜, 2001; 김원용·이동훈, 2005), 물리적 충돌이나 사태의 일탈성을 강조해 표피적으로 드러난 사건에만 초점을 맞춰왔다(김원용·이동훈, 2005). 또한 갈등이 벌어졌을 시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항시 법과 같은 기존 사회 질서를 우선적으로 지지하거나(장용호, 1987; 양정혜, 2001) 다양한 담론이 경쟁하는 경우 미디어의 담화 관행을 따르는 식(김원용·이동훈, 2005)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재현 방식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특정한 방식으로 보도록 한다. 즉 사회적 갈등을 표면적인 대립 구조로 보게 하여 내부적인 사정과 이해관계에 대해 심각하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나 사회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들을 지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갈등에 대한 미디어의 인식은 단순히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실제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미디어가 현실을 재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명명하기이다. 명명하기는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수행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수사 전략이다. 명명하기는 사건을 간단히 규정하기 때문에 이를 여러 담론 속에서 쉽게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현실을 단순히 규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난점들 또한 가지고 있다. 이면의 복합적인 의미를 간과하게 하게 만든다거나,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사건을 하나의 명명된 단어로 지칭해 특정한 태도로 유도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명명하기를 실행할 경우에는 보다 신중

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현실을 명명하는 방식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야만 한다. 명명하기가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과 갈등이 벌어진 현실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시각은 갈등에 대처하는 행동을 천양지차로 달라지게 만든다. 윌못과 호커(Wilmot & Hocker, 2007)는 갈등의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은유로 표현됨으로써 그 의미가 전환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은유 방식은 갈등을 대하는 태도와 이를 해결하는 전략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은유라는 것은 표현하기 어려운 현상을 익숙한 것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 모호한 개념과 익숙한 현상 사이에는 필연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은유를 통해 똑같은 갈등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은유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자의적인 관계에 불과한 은유가 현실을 규정하기도 한다.

명명하기는 수많은 사건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진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명명하기는 어느 정도의 역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일차적 단계라는 점에서 인간의 언어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러한 명명하기 중에서 사회적으로 함께 고찰해보아야만 하는 종류의 명명하기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승부수 언어이다. 승부수 언어는 사회적 단어 목록 내에서 최고 꼭대기의 위계를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아주 강력한 수사적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이고 최후의 보루와도 같아서 승부수를 던지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승부수 언어가 단순한 언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집합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실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짓는 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특정한 사회 내에서 일종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Hart, 1997).

승부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더욱 강화하거나 쉽게 유통하는 수단은 다름 아닌 미디어이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승부수 언어를 통해 우리 현실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담론의 지형을

살펴보는 데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논문에서는 ‘국론 분열’이 대표적 매스미디어인 신문에서 재현되는 방식과 이것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 방식을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신문에서 ‘국론 분열’을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했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은유와 등치되어 사용된 단어를 살펴보았다. 은유는 크게 명사적인 형태와 서술어 형태로 이뤄진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측면의 은유가 신문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등치되어 사용된 단어는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단어를 연결해주는 접속 조사 ‘와/과’로 연결된 단어로 살펴보았다.

둘째로는 ‘국론 분열’의 맥락적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사회적 의미를 파악해보았다. 사회적 맥락을 보기 위해서는 신문에서 ‘국론 분열’적 상황이라고 지칭한 사회적 이슈와 ‘국론 분열’을 시켰다고 지칭한 주체를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회적 어휘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들은 미흡하며 승부수 언어라는 개념으로 검토해본 연구 또한 없다. 따라서 이 논문을 통해 승부수 언어로 명명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강력한 설득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사회에서 힘을 갖고 있는 사회적 어휘를 발굴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2. 이론적 논의

1) 승부수 언어

일부 어휘 목록은 집단에 의해서 구성되며 따라서 일종의 권력을 행사하기도 한다(Hart, 1997). 여기에서 권력이라는 것은 “사건이나 의미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Brummett, 1994, p.4)”을 말한다. 즉 일련의 어휘들이 특정한 사회적 사건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 어휘는 그 사회의 역사 속에서 축적된 의미를 담고 있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언어’라고 볼 수 있다. 즉 정치인이나 언론 보도에서 사용하는 어휘들은 일반적인 어휘도 아니며, 그들만의 독창적인 창작물도 아니다. 집단적인 언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설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형성되면서 권력을 가지게 된 다양한 어휘들을 시의 적절하게 취사선택하며 헤게모니 싸움을 벌인다.

집단 언어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특정 집단이 이를 지칭하고, 이것이 사회에서 동의되는 과정에서 의미가 규정된다. 다시 말해 특정 집단의 창조적인 언어 창안 및 사용과 자발적인 사회적 동의라는 과정을 통해 집단의 언어는 사회 맥락의존적인 특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하나의 권력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광주’는 지역 이름이며 ‘봄’은 계절 중의 하나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광주의 봄’으로 연결되면 그것은 억압된 민중, 폭압적인 군부, 사회적 상처와 트라우마와 같은 것을 지칭한다. 이것은 분노나 두려움에 의한 침묵과 같은 사회적인 행동을 촉발시킨다. 이 어휘를 특정 상황에서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광주민주화항쟁 사건만을 지칭하는 데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단어 중에서는 대립되는 의미가 없거나 반박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수사적 힘을 가진 단어가 있다. 이것이 바로 ‘승부수 언어(Ultimate Terms)’이다(Hart, 1997).

버크(Burke, 1969b)는 용어들이 실재계(positive order)와 변증계(dialectic order) 그리고 천상계(ultimate order)로 나뉠 수 있다고 하였다. 실재계에 속하는 어휘들은 경험적인 것들을 명명한다. 시간과 장소 내에 위치할 수 있어서 가장 가시적이고 실재적인 것들이다. 따라서 가장 모호하지 않은 것이 실재계에 위치한 어휘들이다. 변증계에 속하는 어휘는 허구적인 실체, 즉 생각을 표현하는 어휘이다. 따라서 실재계에 있는 어휘들보다 추상적이며 서로 개념을 구별하기 어렵고 모호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실재계의 어휘와 변증계의 어휘들은 서로 완벽히 구분되어 있거나 별개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들이 지칭하는 범위는 상호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의 경계 사이에서 새로운 계가 탄생하게 되는 데 이것이 천상계이다. 천상계의 어휘들은 앞의 계에 속한 어휘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변증계와 천상계는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변증계는 서로 다른 것들과 얽혀있는 관계 속에서 경쟁하는 목소리들을 남겨(Burke, 1969b, p.187)”두는 반면 “천상계는 이러한 경쟁하는 목소리들을 위계적이거나 결과적 혹은 평가적인 연속성 내에 위치시킨다(Burke, 1969b, p.187)”. 다시 말하면 변증계에 있는 어휘는 표현되는 순간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에 의해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상대적인 개념들을 항상 포함하거나 수반하고 있다. 하지만 천상계에 속한 어휘에는 “인도하는 생각(guiding idea)”과 “단일한 원칙(unitary principle)”이 목소리의 다양성 뒤에 존재한다(Burke, 1969b, p.187). 예를 들어 ‘환경’이라는 어휘는 ‘개발’, ‘발전’, ‘편리함’이라는 반대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과 ‘개발’은 서로 모순이 되지만 변증법적으로 부딪히면서 그 의미를 발전시켜 나간다. 따라서 이것은 변증계에 속한 어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 ‘자유’, ‘생존’과 같은 말은 반대편에 서서 이들 단어와 서로 경주할 수 있는 어휘가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인권이 포함하고 있는 상대 의미는 박해, 착취, 학대와 같은 것이다. 자유의 상대 의미는 속박, 생존의 경우에는 죽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어휘들은 ‘인권’이나 ‘자유’, ‘생존’과 같은 어휘와 경쟁하며 논의되기 힘들다.

그리고 승부수 언어는 긍정적 승부수 언어와 부정적 승부수 언어로 대별될 수 있다. 위버(Weaver, 1953; Hart, 1997에서 재인용)는 승부수 언어가 선의의 용어(God Terms)와 악의의 용어(Devil Terms)가 있다고 하였다. 선의의 용어는 듣자마자 심리적으로 무릎을 꿇게 만드는 종류의 어휘들이다. 정의, 평등, 자유, 과학 발전 등과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 악의의 용어는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적의나 적개심을 느끼게 만드는 어휘이다. 인종이나 마약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악의의 용어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무엇보다 효과적이다.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쉽게 반박할 수 없는 승부수 언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위의 맥락에서 이어져 워버(Weaver)는 승부수 언어들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하였다(Hart, 1997). 첫째, 승부수 언어는 실제 존재하는 대상을 가리키기보다는 사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추상적이다. 둘째, 단 몇 자의 단어만으로도 강력한 감정을 촉발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셋째, 사회적 가치의 최상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계적이다. 넷째, 승부수 언어는 선제적이다. 미국의 상원위원이었던 매카시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상대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라고 하여 선제공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6대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는 동안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을 ‘차떼기 당’, 즉 ‘부패한 당’이라는 승부수 언어를 사용하여 선제공격하였다(남궁은정·이은영, 2006).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승부수 언어가 안정적이지 않은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 특징은 승부수 언어를 위협한 것으로 만드는 특징이다. ‘공산주의자’라는 승부수 언어는 1960~1970년대에 사용되던 2000년대에 사용되던 똑같이 ‘공산주의자’로 표기된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적 맥락에 따라서 이 단어의 의미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고정된 기표를 가지고 사용되기 때문에 양날의 칼날이라고 될 수 있다.

이러한 승부수 언어는 현대 사회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남성동성애자(fag)’, ‘적자 지출’, ‘성차별’, ‘애국자’, ‘통합’, ‘헌신’, ‘가족’, ‘진정한 아메리카니즘’, ‘모든 이들에 대한 평등’, ‘과학적 진보’와 같은 것들이 승부수 언어로 지목된다(Weaver, 1953; Hart, 1997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승부수 언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친북’이나, ‘간첩’, ‘경제 살리기’와 같은 것들이 승부수 언어로 선택될 수 있음을 직관적으로 떠올려 볼 수 있다(남궁은정·이은영, 2006).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 사회에서 쉽사리 비판되거나 이에 대한 반대의 논의들이 쉽게 수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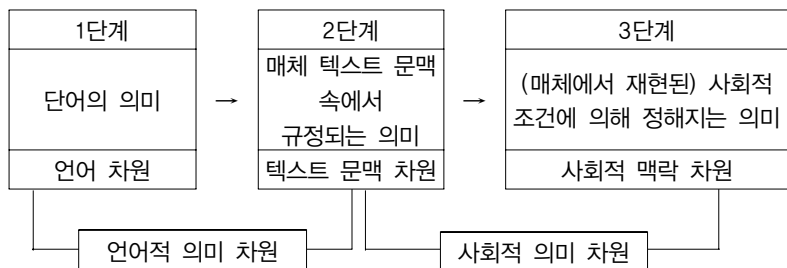
2) 사회적 의미의 생성

승부수 언어는 사회적인 어휘이다. 사회적인 어휘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의미에 비해 사회적으로 형성된 의미가 강하게 작용하여 의미 해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가 사회의 특수한 맥락을 많이 반영한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 국가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그다지 큰 위협이 아닐 수 있다. 혹은 다양한 의견이 수용되거나 다원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며 심지어는 국론이라는 말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승부수 언어는 사회적 용어라고 볼 수 있다.

매스미디어를 매개로 한 언어의 사회적인 의미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을 거쳐 형성된다(<그림 1> 참조).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미디어에서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이때는 일상적 언어로 사용될 때의 의미나 매체에서 사용될 때의 의미가 서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미디어 텍스트 문맥 속에서 반복되어 사용되면 일상적 언어의 의미보다 매체에 더 적절한 언어적 의미가 구성된다. 이것이 미디어 텍스트 문맥 속에서 의미가 결정되는 두 번째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매체 외적인 사회적·역사적 사건이나 경험과 맞물려서 사회 맥락적 의미를 구성한다.

이 단계 중에서 미디어 재현에 해당되는 부분은 언어의 의미를 탐구하는 1단계를 제외한 2, 3단계라고 할 수 있다. 각각에 해당되는 단계에서 승부수 언어는 각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파악될 수 있다. 2단계는 텍스트 속에서



<그림 1> 미디어를 통한 승부수 언어의 사회적 의미 형성 과정

은유되거나 연합되어 사용되는 방식을 통해, 3단계는 승부수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적인 사건과 주체를 통해 파악해볼 수 있다.

(1) 매체 텍스트 차원에서의 승부수 언어: 은유와 연합을 통한 명명하기

승부수 언어는 기본적으로 명명하기부터 시작한다. 명명하기(naming)는 흩어져 있는 세계를 순서 매기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하나의 수사 방법이다(Campbell, 1996). 이는 경계가 없는 자연적인 세계를 특정한 의미로 규정하고 경계 짓는 첫 번째 단계이다. 즉 프레이밍의 시작이자 기초라고도 할 수 있다. 명명하기는 중립적인 경우도 있지만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여 사용될 때가 종종 있다. 이러한 행위는 즉각적인 거부나 좋은 않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명명하기는 정책이나 실행, 신념이나 이념, 사람이나 집단에 반대하기 위해 사용된다(Campbell, 1996).

그런데 이러한 명명하기는 몇 개의 단어로 복잡한 현상을 대변하기 때문에 언제나 논리적인 비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비약은 종종 ‘은유’의 기제를 따르고 있다.

① 은유

은유는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다(Lakoff & Johnson, 1980/1995, p.23). 즉 낯선 것을 낯익은 것으로 정의하는 수사법이다. 레이코프와 존슨(Lakoff & Johnson, 1980/1995)은 대표적인 은유로 “시간은 돈이다”라는 예시를 들고 있다. 시간은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즉 낯선 것이다. 하지만 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물질로 현현하고 있다. 사용 기제 또한 명확하기에 우리가 인식하기 쉽다. 따라서 비교적 모호하고 낯선 개념인 시간을 구체적인 개념인 돈에 치환시켜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너무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은유라고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다름 아닌 은유이다. 다시 말해 은유는 ‘Y의 용어로 X에 대해서 이야기(to speak about x in terms of y)’하는 것으로(박영순, 2000) 여기서 X는 낯선 것, Y는

익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레이코프와 존슨(Lakoff & Johnson, 1980)의 은유에 대한 정의가 가지는 특징은 은유를 단순한 언어 표현이 아니라 인간의 개념 체계 자체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은유가 인간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은유는 단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사유행위의 바탕이며, 그러한 은유적 사유를 통해 행동을 결정하기도 한다(박정운, 2004). 따라서 Y의 용어로 X에 대해 ‘말하는 것’뿐 아니라, 은유를 통해 Y의 관점에서 X를 ‘이해’하고 ‘경험’한다.

그런데 Y를 통해 X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은 이 은유를 사용한 사람이 직접 이 둘의 관계를 경험하거나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 바로 은유는 일상 속 관습에 의해서 전수되는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은유가 애초에 발생했을 때 겪을 수 있었던 실제 경험이 무엇이었는지는 상관없이 은유는 그 자체로 일상 언어와 문화 속에 잠재된다. 그리고 이를 사회화·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습득한다(봉일원, 2004). 봉일원(2004)은 일본은 침략 국가이고 미국은 도움을 주는 좋은 나라라는 식의 상투적인 인식이 이 세대의 경험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인식은 사람들의 경험과는 동떨어져 있을 수 있으며 오히려 경험에 반하는 특정한 인식을 간직하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은유가 사람들의 자동적인 인지 도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은유가 체계적이기 때문이다. “은유적인 표현들은 은유적인 개념들과 체계적인 방식으로 연결(Lakoff & Johnson, 1980/1995)”되어 있다. 이러한 은유의 체계성은 일련의 서술어 목록을 함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의 명사형 은유는 이에 결합될 수 있는 일부의 서술어들을 취할 수 있다.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은유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여기서 호수는 ‘잔잔하다, 맑다, 혼탁하다, 고여 있다, 출렁인다 등’의 서술어와 결합될 수 있다. 따라서 마음이 호수로 은유되었다는 것은 ‘마음’이라는 단어 또한 이러한 서술어와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은유가 체계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은유로도 모호한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

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들 간의 관계는 유사성의 관계일 뿐 동일한 관계가 결코 아니다. 동일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유 표현과 대상을 등치시켜 생각하다 보니, 이 둘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 사이에는 특정한 간극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간극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특정한 행동을 연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갈등은 전쟁이다’라는 은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갈등에 대해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혹은 ‘갈등은 춤이다’라고 은유한다면 갈등을 하나의 즐거움의 대상, 상대방과 박자와 리듬을 맞춰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같은 대상일지라도 다른 식의 은유를 사용하게 되면 서로 다른 행동을 지향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하야카와(Hayakawa)는 은유가 “담론의 장식물”이 아니며 “평가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며, 표현하고자 하는 강한 느낌을 가질 때마다 반드시 (은유가: 필자 첨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였다(Hayakawa, 1978; Wilmot & Hocker, 2007에서 재인용). 즉 은유는 행위이고 그것은 체험과 관련되어 있다.

② 연합

은유는 명명하기의 하나인 승부수 언어에 직접적으로 의미를 규정해준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에 체계성을 부여해 일련의 태도나 행위를 수반하게 한다. 하지만 이것은 명명화에 사용된 단어 자체의 의미만을 밝혀줄 뿐이다. 일반적인 명명하기와 승부수 언어는 위계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은유는 뜻을 보장해줄 뿐 단어들 간의 위계를 드러내주지 못한다. 따라서 승부수 언어와 함께 쓰이는 단어들의 목록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언어와 같은 기호는 추상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겠지만 기본적으로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 명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말 또한 그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여지없이 순환 고리에 함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호의 의미는 다른 기호들과의 비교와 차이에 의해서만 비교적 고정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기호가 어떠한 기호들과 함께 쓰이는지는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한 것은 고전적인 선전 기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Lee와 Lee(1939; Severin & Tankard, 2001에서 재인용)가 제시한 선전의 다섯 가지 장치 중에 전이라는 것이 있다. 전이(transfer)는 기존에 사람들이 수용해왔고 찬성해왔던 좋은 것, 혹은 권위 있거나 승인된 것들과 함께 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것은 광고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회사의 제품을 멋진 배경, 예쁜 모델 등과 함께 배치시켜 제품에 이와 비슷한 느낌과 의미를 부여하려는 전략이다. 혹은 카피나 제목에서 좋은 느낌의 단어들을 선택하기도 한다. 만약 ‘자연에서 심은 토마토’라는 커피의 제품이 있다면, 단순히 토마토 음료였던 제품이 자연친화적이라거나 건강에 좋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이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특히 고전적 조건화에서 말하는 연합(association)과 관련이 있다. 파블로프(Pavlov)는 생물체는 무조건적 자극이 주어지면 무조건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무조건적 자극과 무조건적인 반응에 상관이 없는 중성자극을 반복적으로 배치하게 되면, 나중에는 중성 자극만으로도 무조건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김정탁, 1990). 여기서 무조건 자극과 중성 자극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연합(association)이다.

이것에 승부수 언어를 대입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단어(중성 자극)가 한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단어(무조건적 자극)와 반복해서 병치되어 사용된다면, 일반적인 단어는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은 단어로 인해 갖게 되었던 반응(무조건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 의해서 일반적 의미를 담고 있었던 특정한 단어는 최상의 위계를 갖는 승부수 언어로 재탄생될 수 있다.

(2) 사회적 맥락에 의해 형성되는 의미

앞에서는 승부수 언어의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을 텍스트 내에서 이뤄지는 문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승부수 언어가 강력한 설득적 힘을 갖는

것은 텍스트상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쓰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의미가 실제 사회 속에서 경험되기 때문이다. 승부수 언어는 “신화적(Burke, 1969b, p.189)”인 측면이 강하며, 바르뜨(Barthes, 1957/1972)는 한 사회에 존재하는 신화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역사성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논의는 승부수 언어를 분석할 때 사회적 맥락을 주요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적 맥락은 참으로 다양해서 하나로 정의하기도 포착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이를 분석해보기 위한 하나의 틀로서 버크의 드라마티시즘 분석을 도입해볼 수 있다.

버크(Burke, 1969a)는 사람들의 활동을 상징행위로 보았으며, 이를 드라마로서 파악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다섯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기본적인 요소는 행동(act), 주체(agent), 수단(agency), 장면(scene), 목적(purpose)이다. 행동은 행해진 일이나 의도한 행동과 같은 것을 말한다. 주체는 행동을 하거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을 말한다. 수단은 행동을 이루기 위해 이용한 것을 말하고, 장면은 행동이 일어난 물리적·사회적 환경과 맥락을 말한다. 그리고 목적은 행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매체에서 사용되는 승부수 언어를 이 논의를 적용해보았을 때는 두 개의 액자가 발생한다. 첫 번째 액자는 매체 바깥에 존재하는 틀이고, 두 번째 액자는 신문 내용 안에 존재하는 틀이다. ‘국론 분열’이라는 용어를 대입해서 설명해보자. 첫 번째로 매체에 초점을 두고 보면, 행동은 ‘국론 분열’이라고 명명하는 행위, 주체는 매체, 장면은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 수단은 승부수 언어인 ‘국론 분열’ 사용이다. 그리고 목적은 신문사 텍스트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주장이다. 두 번째로 승부수 언어를 초점에 두고 보면, 행동은 국론을 분열한 행위, 주체는 ‘국론 분열’을 한 개인이나 집단, 장면은 해당 사건, 수단과 목적은 각 사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요소들은 하나의 발화가 성공적이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준다(Smith, 2003). 하지만 이 다섯 가지의 요소가 모든 수사적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두 세 개의

요소들이 작용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의 요소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주체와 장면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버크의 다섯 가지 요소는 연극의 요소에서 가져온 것인데, 연극의 3요소가 무대, 배우, 관객이라는 것을 보면 장면과 주체는 수사적 상황에서 가장 기본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 버크는 이를 비율(ratios)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비율은 무엇이 혹은 누가 무엇을 통제하고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비율에 대해서는 수사자가 사용하는 전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전략에 의해 수사학적 힘이 달라진다.

3) 승부수 언어의 사회적 의미와 수사적 권력

사회의 어떤 존재를 규정하고 이것이 사회에서 수용된다는 것은 일련의 상징적인 권력이 행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징행위는 이것 자체가 특정한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교환 관계를 전제하며, 이러한 교환은 상대방에게 특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환은 늘 공정한 상태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부르디외(Bourdieu, 1995)는 언어 교환이 이뤄지는 언어 시장이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이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자본 중에 하나인 상징 자본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 상징 자본은 각기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있으며, 최대의 상징 자본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자본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편다.

그리고 이 언어 시장에는 항상 신참자와 기존 행위자가 존재한다. 이 양자 간에는 권력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항상 갈등이 발생한다. 신참자들은 항상 기존 행위자들이 누리고 있던 이해의 구조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양자가 이렇게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은 개인의 속성에 의한 것이 아니다. 다만 언어 시장이 특정한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치에 의해 이들의 역할이 규정될 뿐이다.

신문 매체는 하나의 언어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문 텍스트는

이미 기존 행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 어떠한 사건이나 주체를 규정할 때에도 이러한 선행 조건에 의해 행위를 하게 된다. 따라서 신문에서 사회적 갈등을 재현할 때 기존의 법질서를 옹호하거나 기존의 담화 관행을 답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승부수 언어의 쓰임은 기존 행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함으로써 승부수 언어는 하나의 수사적 전략으로 기능하여 기존 행위자들이 언어적 시장에서 유리한 이해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러한 유리한 위치는 바로 동일화와 소외에 의한 설득 과정에 의해 이뤄진다.

버크(burke, 1969b)는 설득을 ‘동일화(identification)’를 이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개인들은 이상적 자아를 외현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아와 동일시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버크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설득의 강력한 동기로 본 것이다. 동일화의 단계는 총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집단)에 대해 이름을 붙인다. 두 번째로 타인 또는 다른 집단과 동일한 가치를 공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 또는 다른 집단과 동일화된(유현석, 2005). 이러한 과정은 커뮤니케이션 없이는 불가능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 설득하거나 설득을 당한다 (Smith, 2003).

문제는 동일화나 분리가 일부 사람들을 타자화시킴으로써 특정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사랑의 대상과 함께 하는 것을 동일화로, 그 사랑의 대상을 상실하는 것을 소외로 해석하였다(Smith, 2003, p.323). 즉 동일화는 타자들과의 통합을 의미하며 소외는 타자들과의 격리를 의미한다. 격리되었다는 것 자체는 불확실성과 불안을 야기하고 극심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만든다. 만약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고 현실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벌어진 처벌이라고 여기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격리되었다는 느낌을 가질 때 이에 대한 죄의식을 갖게 된다(유현석, 2005).

버크는 인간이 죄의식을 다루기 위한 일련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Brummett, 1994). 이것은 바로 초월, 금욕, 희생양 만들기이다. 첫 번째 방법

과 두 번째 방식은 죄의식을 해소하는 방식이 타인에게 향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마지막에 있는 ‘희생양 만들기’는 타자를 염두 해 둔 죄의식 해소 방식이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정한 권력집단이 동일화하지 못했거나 일부러 동일화를 회피한 결과로 인해 격리된 개인이나 집단은 ‘희생양’이 될 수 있다. 희생양 만들기는 일부 집단을 타자화하기 위해서도 일어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동일화된 개체의 내부적 결속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동일화된 자아 혹은 자기 집단이 현실 속에서 사소한 인지 부조화를 겪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희생양이 된 대상을 사례로 보여줌으로써 인지적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미 동일화된 집단의 불안은 감소시키고 기존의 동일화를 더욱 강화한다. 다시 말해 타자화는 소외된 대상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동일화된 대상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위에서 지적했듯이 승부수 언어는 경쟁하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승부수 언어에 의해서 지칭된 ‘타자’라는 정체성은 배척되는 것에 대한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 ‘타자’는 일반적으로 지배 집단의 밖에 있으며 암묵적으로 지배 집단에 종속된 자들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Hélène, 1999). 특히 헬렌(Hélène, 1999)은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극심한 불안을 감수해야 할 때 ‘나는 아니다’, ‘내가 속한 집단은 아니다’, ‘잘못은 타자에게 있다’라는 식의 반응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위협적인 현실을 자신의 것이 아닌 타자의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개인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인지적인 균형 상태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사회심리학적인 특성이라면 위협한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타자’는 어떻게든 만들어지게 된다.

그런데 대중매체는 새로운 것이면서 이상하고 특이한 현상을 기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갈등이라는 것은 항상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이 뉴스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상’한 것이며 ‘위험’한 것이 되어야 한다(한국언론학회, 1994). 따라서 갈등 당사자들은 미디어 보도를 위해 자신

들의 갈등을 일부러 위험한 것으로 만드는 전략(국가 위기에 대한 전망, 갈등으로 인한 폐해 제시, 분신자살, 파괴, 단식 등)을 사용한다. 또한 미디어는 그러한 위험한 부분만을 부각해서 뉴스를 만든다. 그러한 ‘위험’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뉴스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문에서의 승부수 언어로 인해 지칭된 갈등이나 위험의 정도가 실제적인 위험과 동일선상에 있는지, 승부수 언어로 인해 지칭된 타자가 실제로 갈등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정당한 당사자인지, 그리고 그 정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이나 주체인지에 대한 판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국론 분열’이 단순한 언어적 의미를 떠나서 어떠한 텍스트적 의미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의 단어 의미가 아닌 텍스트 속에 존재하는 문맥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은유와 연합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내보려고 하였다. 따라서 연구 문제 1을 다음과 같이 상정하였다.

- 연구 문제 1 ‘국론 분열’의 텍스트적 의미는 신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 연구 문제 1-1 신문에서 ‘국론 분열’을 나타내는 은유의 특징은 무엇인가?
- 연구 문제 1-2 신문에서 ‘국론 분열’과 연합되어 사용된 단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국론 분열’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러한 텍스트적인 재현이 실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신문의 재현 방식을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신문에서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 이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미디어에서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은 다양한 분석방법으로 분석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버크(Burke, 1969a)가 제기한 기본적인 요소인 사건과 주체를 통해 파악해보았다. 이를 토대로 연구 문제 2를 다음과 같이 상정하였다.

- 연구 문제 2 신문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국론 분열’은 어떤 사회적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가?
- 연구 문제 2-1 신문 텍스트에서 ‘국론 분열’되었다고 지칭된 사건은 ‘국론 분열’의 사회적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 연구 문제 2-2 신문 텍스트에서 지칭하고 있는 ‘국론 분열’의 주체는 ‘국론 분열’의 사회적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2) 연구 방법

이 논문에서는 매스미디어에서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벌어졌을 경우 사용하는 말인 ‘국론 분열’이라는 단어가 재현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신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론 분열’의 사회적 의미를 탐색하는데 집중하였다. 이를 텍스트 차원의 의미와 사회적 맥락에서의 의미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텍스트 의미 차원에서는 ‘국론 분열’이 은유되고 연합되는 방식을 보았다. 은유는 기본적으로 ‘국론 분열은 ~이다’라는 식의 명제를 성립시키는 단어인 명사형 은유를 살펴보았고, ‘국론 분열’이라는 단어에 수반된 서술어 또한 살펴보았다. 그리고 신문에서 드러난 은유적 표현들을 분류하여 정리하고 이것이 얼마나 빈번히 사용되었는지를 측정하였다. 연합은 ‘국론 분열’과 함께 쓰인 단어들을 살펴보았다. 그중에서도 같은 자격의 단어를 열거시키는 접속 조사인 ‘와/과’로 이어지는 단어들의 빈도를 측정하

였다. 텍스트 내에서 위치상으로도 가장 가깝고 의미상으로도 동등한 위치에 속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 맥락에서의 쓰임은 버크의 드라마티시즘 분석에서의 다섯 가지 요소 중 주체와 사건으로 살펴보았다. 앞선 이론적 논의에서 신문에서 재현되는 승부수 언어는 두 가지의 액자를 가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신문 텍스트 내에서 재현되는 승부수 언어의 특성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신문 텍스트 내적인 곳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사실상 드라마티시즘의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는 행동인데, 이미 ‘국론 분열’이라는 것 자체가 행동이기 때문에 배경이 되는 사건과 행동 주체를 살펴본 것이다. 사건은 신문 텍스트 내에서 ‘국론 분열’적 사건이나 상황이라고 지칭한 것을 말한다. 주체는 ‘국론 분열’을 시킨 사람이나 집단이라고 지칭한 내용을 빈도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빈도는 SPSS 15.0을 이용해 교차분석을 하고 여기에서 비롯한 빈도들의 차이에 대한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3) 연구 대상

본 논문에서는 신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론 분열’에 대한 용어의 쓰임과 이들이 구성하고 있는 국론 분열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집단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쓰임을 다루기보다는 일반적 수준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서울의 주요 일간지인 국민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 총 10개의 신문을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여기에서는 신문사의 사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설은 신문사의 의식이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형식이며 타 정보원의 발언이나 시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설 내에서 쓰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발언을 인용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연구 대상 선정은 한국언론재단의 DB페이지인 카인즈(www.kinds.or.kr)와

<표 1> 한국 주요 일간지의 ‘국론 분열’ 용어 사용량과 호 안은 비율, %

	세계	중앙	문화	동아	서울	국민	한국	경향	조선	한겨레	합계
2003 (3~12월)	24 (5.8)	12 (2.9)	11 (2.7)	26 (6.3)	13 (3.1)	10 (2.4)	12 (2.9)	11 (2.6)	9 (2.2)	1 (0.2)	129 (31.1)
2004	35 (8.4)	25 (6.0)	15 (3.6)	16 (3.9)	17 (4.1)	11 (2.6)	9 (2.2)	14 (3.4)	8 (1.9)	5 (1.2)	155 (37.3)
2005	11 (2.6)	4 (1.0)	5 (1.2)	5 (1.2)	3 (0.7)	3 (0.7)	9 (2.2)	3 (0.7)	1 (0.2)	0 (0.0)	44 (10.6)
2006	23 (5.5)	11 (2.6)	19 (4.6)	1 (0.2)	7 (1.7)	10 (2.4)	2 (0.5)	2 (0.5)	0 (0.0)	1 (0.2)	76 (18.3)
2007 (1~3월)	3 (0.7)	4 (1.0)	2 (0.5)	0 (0.0)	0 (0.0)	1 (0.2)	0 (0.0)	0 (0.0)	0 (0.0)	1 (0.2)	11 (2.6)
합계	96 (23.1)	56 (13.5)	52 (12.5)	48 (11.6)	40 (9.6)	35 (8.4)	32 (7.7)	30 (7.2)	18 (4.3)	8 (1.9)	415 (100.0)

중앙일보,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기사 검색 페이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검색어는 ‘국론 분열’로 하였다. 기간은 2003년 3월 1일부터 2007년 3월 30일까지로 4년 동안으로 정했다. 2003년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때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시기이며 이후부터 4년 동안은 우리 사회에서 유의미한 갈등 사건들이 지속되었다.

4. 연구 결과

1) 신문 텍스트 차원에서 구성되는 ‘국론 분열’의 의미

첫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신문에서 나타난 ‘국론 분열’의 텍스트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텍스트상에서 ‘국론 분열’이 가지고 있는 함축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이 부분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은유와 연합에 의해 형성되는 의미

를 살펴보았다.

(1) 은유에 의해서 정해지는 의미

은유는 명사형으로 드러나는 방식이 있고 서술어 체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방식이 있다. 은유는 기본적으로 ‘~은 ~이다’의 형식을 띠고 있다. 하지만 문체로 사용이 될 때 이러한 기본형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한 시에 나오는 ‘어느 투명한 저녁¹⁾’이라는 문구는 이러한 기본 문형과는 맞지 않는다. 하지만 이 문장은 명확한 경계가 없고 모호한 저녁이라는 개념을 유리병으로 은유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투명한 저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신문 텍스트 내에서 나타난 일상적 은유 표현에서도 ‘~은 ~이다’라는 식의 기본형을 사용한 것은 거의 보기 힘들었으며 이는 명제의 차원에서 존재하였다. 신문 속에서의 은유 표현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국론 분열’ 은유 사용 예시

- 국론 분열, 사회 혼란, 정쟁 과열 등의 평지풍파²⁾
- 국론 분열의 진양³⁾
- 국론 분열의 불씨⁴⁾
- 국론 분열의 후유증도 속히 치유해야 할 과제⁵⁾
- 국론 분열이라고 할 정도의 비싼 대가를 치를 만큼⁶⁾

‘국론 분열 등의 평지풍파, 진양, 불씨’는 각기 ‘국론 분열’을 지진과 화재라는 재앙으로 은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론 분열의 후유증’, 그리고 이를

1) 기형도의 시 『어느 푸른 저녁』 중에서.

2) [사설] 개헌 논의, ‘민생의 블랙홀’ 안 된다. (2007.1.11). 『세계일보』.

3) [사설] 盧대통령, 北핵실험 놓고 탄 목소리 내지 말아야. (2006.10.11). 『문화일보』.

4) [사설] 특검 중단, 국민은 잊지 않을 것이다. (2003.6.24). 『동아일보』.

5) [사설] ‘파병’, 결정 이후가 더 중요하다. (2003.10.20). 『세계일보』.

6) [사설] 북핵 해결의 열쇠 돼야. (2003.4.4). 『경향신문』.

‘치유’해야 한다는 것은 ‘국론 분열’을 병으로, ‘국론 분열이라고 할 정도의 비싼 대가’는 ‘국론 분열’을 경제적 개념인 비용으로 은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신문 속에서 나타난 ‘국론 분열’에 대한 은유는 세 가지 재해, 병, 비용으로 정리된다. 특히 지배적으로 ‘국론 분열’은 병으로 자주 은유되었다.

<표 2> ‘국론 분열’의 명시형 은유

‘국론 분열’에 대한 은유 표현	병	재앙	비용	합계
해당 단어 양	16	9	3	28

<표 2>를 보면 한국 사회에서 ‘국론 분열’은 아픈 것이라거나 힘든 상황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두 가지의 함의를 가진다. 하나는 ‘국론 분열’이 아주 나쁘고 부정적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론 분열’을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양 문화권에서 갈등을 보는 시각과 일치한다. 서양에서는 갈등을 콘플릭트(conflict)라고 표현하는 데 반해 동양에서는 갈등(葛藤)이라고 한다(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3). 콘플릭트(conflict)는 라틴어 comflig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com(together) + fligere(to strike)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서로가 부딪히는 것이란 뜻이다. 반면 갈등(葛藤)은 칩 갈 자에 등나무 등 자를 쓴다. 칩뿌리나 등나무처럼 얽히고설켜서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단어 사용은 각기 갈등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며 이에 따른 해결 방법에서도 차이가 난다. 서양에서는 밖으로 드러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 사건을 분석하고 단위를 나눠서 해결 단계를 만든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적인 수양과 덕을 기른다. 자연 현상인 갈등을 인간인 우리가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갈등에 대한 대처 행동에 있어서 보다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에 없다. 위의 은유를 보면 ‘국론 분열’을 보는 시각 또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은유의 형식은 ‘국론 분열’에 잇따라 나온 서술어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이 서술어들의 목록은 앞의 명사형의 은유들에 대한 태도나 행동 양식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 서술어로 형성되는 은유는 명사형 은유의 의미를 체계화시켜주며 일상 속에서 보다 자주 사용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표 3>를 보면 실제로 국론 분열과 함께 사용된 서술어는 총 303건으로 수적으로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국론 분열’에 쓰인 서술어의 빈도

‘국론 분열’과 함께 쓰인 서술어	중립적 현상 기술	부정적 상황	대처 행동	합계
해당 단어 양	160	71	72	303

‘국론 분열’과 관련한 서술어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유지·심화·발전되는 것을 중립적으로 서술하기 위한 어휘이다. 예를 들면 ‘야기되다, 벌어지다, 나타나다, 일어나다’와 같은 단어들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국론 분열’을 하나의 사건(event)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데 쓰이는 어휘이다. 여기에는 ‘획책하다, 자초하다, 돌이킬 수 없다’ 등과 같이 부정적 판단이 확실히 들어간 표현들이 포함되었다. ‘국론 분열’을 옹호하거나 긍정 하는 서술어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한 중립적인 현상을 기술하는 서술어에서조차도 ‘조장된다’거나 ‘야기된다’, ‘유발한다’는 어휘들이 포함되었고 긍정적인 일을 묘사하는 단어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론 분열’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나타내는 어휘가 사용되었다. 여기에는 ‘막아야 한다, 지양돼야 한다, 최소화하다, 봉합하다, 헤쳐 나가다’ 등과 같이 현상을 기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련의 행동을 서술한 어휘들이 포함되었다. 대처 행동에 속한 서술어들의 특징은 끝내거나 금지·감소하는 의미를

가진 어휘가 다수라는 점이였다. 그 외에는 극복의 의미가 포함된 단어들도 포함되었다. 봉하거나 합친다는 의미의 서술어들도 존재했었는데, 이것은 ‘분열’이라는 단어가 가진 ‘나뉘었다’는 의미를 반영한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국론 분열’에 쓰인 서술어는 현상을 기술해주기 위한 서술어,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서술어 그리고 대처 행동을 나타내는 서술어로 이뤄져 있다. 이 결과는 앞에 나온 ‘병’, ‘재앙’, ‘비용’의 명사형 은유형과 조응을 이루고 있다. 이 둘은 모두 ‘국론 분열’을 하나의 현상으로서 보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금지하거나 최소화하고자 하는 등 회피적이거나 순응적인 대처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국론 분열’을 하나의 놀이나 게임으로 은유하였다면 오히려 판을 벌여야 한다고 했을지도 모르며, 전쟁이라고 보았다면 끝을 보아야 한다는 식으로 공격적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론 분열’은 어쩔 수 없는 자연 현상이고 없으면 좋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없애거나 감소시켜야만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어들은 명사형 은유들과 함께 결합되어서 은유의 의미를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확산시킨다. 빈도 면에서는 명사형 은유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이 은유의 핵심이 되며 서술어들은 이에 체계성을 부여하며 그 의미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 연합에 의해 정해지는 의미

그 다음으로 ‘국론 분열’에 대한 신문사들의 명명하기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등치되어 사용된 단어를 살펴보았다. 등치 단어는 은유의 방식은 아니다. ‘~은 ~이다’라는 형식의 문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등치 단어는 ‘~와/과’를 이용해 병렬식으로 연결된 단어이다. 이를 알아보는 것은 단어의 위계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와/과’는 동일한 자격의 단어를 병렬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연결된 단어들과 ‘국론 분열’은 동급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표 4>를 보면 신문 텍스트 속에서 ‘국론 분열’이라는 표현과 함께 등치되어 사용된 단어들을 볼 수 있다. ‘국론 분열’과 등치되어 사용된 단어는 크게

<표 4> ‘국론 분열’과 등치되어 사용된 단어의 빈도

‘국론 분열’과 함께 쓰인 단어	갈등상태	국정	국가적 손실	사회문제	이념	합계
해당 단어 양	31	34	19	19	13	116

다섯 가지로 나뉜다. 먼저 갈등상태를 기술하는 단어이다. 여기에는 ‘갈등’, ‘대치 상황’, ‘후유증’, ‘소모적인 논쟁’ 등과 같이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포함되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앞서서 살펴본 명사형 은유와 거의 중첩되는 면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가적 갈등’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갈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차원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국정활동이다. 국정에는 안보나 정치, 외교 등이 포함되었으며 ‘국론 분열’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여기에는 ‘국정 난맥’, ‘국가 정체성 위기 현상’, ‘안보 불안’, ‘정쟁’, ‘한미 갈등’ 등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는 국가적 손실이다. 앞서서도 ‘국론 분열’은 비용이라는 은유로 표현됨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등치된 단어상에서 보면 그 비용은 국가적 손실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산 낭비’, ‘국가적 비용’, ‘국력 낭비’ 등과 같이 표현함으로써 ‘국론 분열’이 한 나라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네 번째는 사회문제이다. 여기에는 사회, 국민, 계층, 세대, 지역의 갈등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예컨대 ‘사회 혼란’, ‘사회 갈등’, ‘국민 갈등’, ‘계층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지역 갈등’과 같은 표현이 구체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를 보면 ‘국론 분열’은 국가 체계의 정치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맞부딪히고 있는 사회 계층 간의 갈등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념도 ‘국론 분열’과 동급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념과 관련해서는 ‘보혁 이념 논쟁’이나 ‘이념 일탈’, ‘색깔논쟁’, ‘이념적 양극화’ 같은 단어들이 포함되었다. 이 이념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보수/진보의 분리를 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국론 분열’은 국가적 차원, 사회적 차원, 이념적 차원과 동일선상의 위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는

사회나 이념적인 차원을 묶어주는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는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라는 개념은 거의 최상위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론 분열’은 이러한 위계의 단어들과 등치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최상위적 위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위계뿐 아니라 같이 쓰인 단어들의 의미에 의해 다시 한번 ‘국론 분열’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지기도 한다. 손실, 정쟁, 혼란, 악영향, 불안과 같은 단어들이 함께 사용되었기 때문에 ‘국론 분열’은 부정적이고 위험하다는 의미로 고착되고 있다.

국가 및 사회, 이념적 갈등 상황과 ‘국론 분열’이 같은 위계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사실 국가를 운영해가면서 갈등이라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은 혼란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의견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정확하면서도 질 높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이 국가 차원의 손실이나 불안, 분리 등과 같은 위험한 단어들과 함께 쓰이면 불안감을 조성하게 된다.

물론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것이 반드시 수렴되어서 특정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불안감을 자극하는 이러한 표현은 의견을 통합하는 데도 걸림돌이 된다. 국가 및 사회 차원의 갈등을 위험적인 상황, 불안한 상황이라고 규정하게 되면 성급하게 이 상황을 무마해야 한다고 여기게 된다. 불안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갈등을 충분히 분석해보지 못한 채 한쪽 의견을 꺾거나 절충하는 선에서 갈등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대두되게 된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갈등은 어느 갈등보다 많은 비용과 다양한 이해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검토해보고 최대한 많은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적 위험 상황이라고 규정된 상태에서는 빠른 결정을 해서 갈등을 종식시키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 된다. 어느 누구가의 욕구는 충족이 되겠지만 고려되지 않은 욕구들은 억눌려지기 십상이다. 이 이전에 우선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경합할 수 있는 토대를 사라지게

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 오히려 국가 전체의 이익에 손실을 가져오기도 한다.

2) 사회적 맥락 차원에서의 ‘국론 분열’의 쓰임

이 부분에서는 앞선 분석에서 수행했던 텍스트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사회 맥락적인 측면을 결부시켜 ‘국론 분열’이 갖게 되는 의미를 찾아보았다. 각 사건과 주체는 텍스트에서 ‘국론 분열’이라는 말과 의미적으로 연결된 사건과 주체 표현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에는 주체와 사건이 동시에 열거되어 하나의 ‘국론 분열’에 사건과 주체가 중복적으로 표기된 것이 있었다. 따라서 각 사건과 주체는 ‘국론 분열’이 등장한 수인 415건을 상회하였다. 그리고 주체는 있으나 사건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경우와 사건은 지칭되었으나 주체가 지칭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주체와 사건의 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결과를 보면 ‘국론 분열’과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 360건, 주체에 있어서는 352건으로 드러났다. 주체보다 사건이 더 많이 ‘국론 분열’적이라고 지칭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국론 분열’을 하나의 사건으로 여기고 있는 일상적 은유 표현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한 다음의 결과 부분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국론 분열’된 사건들 자체가 이미 특정 주체들의 입장과 명확하게 관련이 있는 정치적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지칭하는 것 자체가 특정한 집단들을 지칭하는 것과 관련성이 높았다. 따라서 ‘국론 분열’의 주체보다는 사건이 보다 많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1) ‘국론 분열’된 사건

첫 번째로 신문지상에서 ‘국론 분열’이 되었다고 기술된 사회적 이슈(Scene)들을 살펴보았다.

<표 5>의 결과를 보면 총 360번의 사건이 ‘국론 분열’적인 사건으로 지칭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후 4년 동안

<표 5> 신문에서 '국론 분열'되었다고 지칭한 사회적 이슈(괄호 안은 %)

지칭사건	국민	경향	동아	세계	조선	중앙	문화	서울	한겨레	한국	계	
외교/ 국방	이라크 파병	6 (1.7)	7 (1.9)	15 (4.1)	13 (3.6)	8 (2.2)	13 (3.6)	8 (2.2)	20 (5.5)	10 (2.8)	100 (27.8)	
	대북외교 문제			4 (1.1)	3 (0.8)		9 (2.5)	2 (0.6)		3 (0.8)	21 (5.8)	
	북핵 미사일	1 (0.3)	1 (0.3)		3 (0.8)		1 (0.3)	3 (0.8)	3 (0.8)		12 (3.3)	
	전시작전 통제권	2 (0.6)			4 (1.1)		1 (0.3)		1 (0.3)		8 (2.2)	
	한미FTA				3 (0.8)		1 (0.3)	1 (0.3)		1 (0.3)	6 (1.7)	
	평택미군 기지이전				2 (0.6)			1 (0.3)			3 (0.8)	
	미 2사단 재배치					1 (0.3)	1 (0.3)				2 (0.6)	
소계	9 (2.5)	8 (2.2)	19 (5.3)	28 (7.8)	1 (0.3)	26 (7.2)	15 (4.2)	24 (6.7)	1 (0.3)	13 (3.6)	152 (42.2)	
정치적 사안	대통령 탄핵		2 (0.6)	1 (0.3)	5 (1.4)	4 (1.1)	4 (1.1)	1 (0.3)	4 (1.1)	4 (1.1)	25 (6.9)	
	대통령 연임 개헌안	1 (0.3)			2 (0.6)	2 (0.6)	5 (1.4)	3 (0.8)	2 (0.6)		15 (4.2)	
	인사권	1 (0.3)			1 (0.3)		1 (0.3)	5 (1.4)			8 (2.2)	
	총선	1 (0.3)	1 (0.3)		1 (0.3)		4 (1.1)	1 (0.3)			8 (2.2)	
	4대 개혁법안	2 (0.6)			1 (0.3)				1 (0.3)	1 (0.3)	5 (1.4)	
	정치적 발언							1 (0.3)	1 (0.3)	2 (0.6)	1 (0.3)	5 (1.4)
	법안개정		2 (0.6)		2 (0.6)				1 (0.3)			5 (1.4)
소계	5 (1.4)	5 (1.4)	1 (0.3)	12 (3.3)	8 (2.2)	14 (3.9)	11 (3.1)	9 (2.5)	3 (0.8)	5 (1.4)	71 (19.7)	
국책 사업	행정수도 이전	5 (1.4)	7 (1.9)	7 (1.9)	16 (4.4)	2 (0.6)	6 (1.7)	2 (0.6)	8 (2.2)		4 (1.1)	57 (15.8)
	새만금 사업	2 (0.6)	2 (0.6)		1 (0.3)		1 (0.3)			1 (0.3)	7 (1.9)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1 (0.3)		1 (0.3)							2 (0.6)
소계		7 (1.9)	10 (2.8)	7 (1.9)	18 (5.0)	2 (0.6)	7 (1.9)	2 (0.6)	8 (2.2)	0 (0.0)	5 (1.4)	66 (18.3)
이념	국가 보안법	1 (0.3)	1 (0.3)	3 (0.8)	7 (1.9)		3 (0.8)	1 (0.3)	3 (0.8)	1 (0.3)	1 (0.3)	21 (5.8)
	과거사 진상규명			2 (0.6)	4 (1.1)		2 (0.6)	2 (0.6)		2 (0.6)		12 (3.3)
	보수진보 이념갈등	2 (0.6)	1 (0.3)		3 (0.8)	1 (0.3)	1 (0.3)	1 (0.3)			1 (0.3)	10 (2.8)
소계		3 (0.8)	2 (0.6)	5 (1.4)	14 (3.9)	1 (0.3)	6 (1.7)	4 (1.1)	3 (0.8)	3 (0.8)	1 (0.3)	43 (11.9)
기타		1 (0.3)	1 (0.3)	3 (0.8)	3 (0.8)		10 (2.8)	4 (1.1)	2 (0.6)		4 (1.1)	28 (7.8)
합계		25 (6.9)	26 (7.2)	35 (9.7)	77 (20.8)	18 (5.0)	63 (17.5)	37 (10.0)	46 (12.8)	7 (1.9)	29 (8.1)	360 (100.0)

df=180, $\chi^2=286.126$, $P<.001$

기타를 제외한 20개의 사건이 국론 분열의 대상으로 지목된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2.4개월에 한 번씩 ‘국론 분열’적 사건을 겪은 셈이다.

신문에서 ‘국론 분열’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사건들은 외교/국방, 정치적 사안, 국책 사업, 이념으로 크게 나뉜다. 이 분류에 속한 사건들은 앞에서 살펴본 ‘국론 분열’과 등치되어 사용된 단어와도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론 분열’과 등치되어 사용된 단어 중 ‘국정’과 ‘이념’이 실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다. 앞의 결과에서 드러난 텍스트 차원에서의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 맥락을 포함해 지칭 사건을 살펴보면 ‘국론 분열’은 국가 차원에서 벌어지는 정치와 굉장히 밀접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국론 분열’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정치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중에서 특이한 점은 ‘국론 분열’의 사건으로 가장 많이 지칭된 범주가 외교/국방(162건/42.2%)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라크 파병 문제로 인해서 국내의 찬반 논란이 심화되었었기 때문이다. 이라크 파병을 ‘국론 분열’ 사안이라

고 지칭한 수는 100건(27.8%/360건)으로 타 사안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라크 파병 이외에도 이 범주에 포함된 사안을 보면 미국과 북한과 관련된 외교/안보적 사안이 ‘국론 분열’적 사안으로 지칭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나라 뉴스에서 ‘국론 분열’적 사건을 만들어내는 주체로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이나 북한이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와는 다른 특정한 역사적 맥락을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군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각 신문사는 ‘국론 분열’이라는 말을 수사적 효과를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각 신문사에서는 사용하는 ‘국론 분열’이라는 단어가 차이를 보인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대표적인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이라고 선택해온 조선일보(18회, 5%/360건)와 한겨레신문(7회, 1.9%/360건)은 ‘국론 분열’이라는 말을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반대로 세계일보(75회, 20.8%/360건)와 중앙일보(63회, 17.6%/360건)는 ‘국론 분열’이라는 말을 상당히 수시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각 신문사가 차별화와 반복적 배치를 이용해 용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국론 분열’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타 신문에서 다른 국가의 갈등 사안을 기사로 신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 신문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갈등 문제를 ‘국론 분열’이라는 하나의 단어에 고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일차적으로 명명하기는 복잡한 세계를 단순화시키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람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을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하게 되면 그 역할이 모호하게 된다. 이 점에서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국론 분열’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한계점을 회피한 것이다.

반면 세계일보와 중앙일보는 반복적 배치를 통해서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반복적인 배치는 다양한 사건들을 ‘국론 분열’이라는 하나의 고정된 기표로 묶어내기 때문에 이 기표의 의미작용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의미를 더한 고정된 기표는 특정한 상황에서 적절히 사용될 때 실제로는 의미가 모호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적확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사건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각 신문사에서는 서로 다른 사건을 ‘국론 분열’ 되었다고 지칭하여 자신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동아일보(15회, 45.5%/35건)와 서울신문(20회, 43.5%/46건)은 이들 신문사에서 ‘국론 분열’이라고 규정한 사건 중에서 이라크 파병 문제에 가장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 신문은 행정수도 이전에 8건(14.4%/360건)의 기사에서 ‘국론 분열’적이라고 지칭하였다. 탄핵 문제에 있어서는 조선일보가 4건(22.2%/18건)의 기사에서 ‘국론 분열’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신문사 내 사용으로 치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신문사 전체에서 ‘국론 분열’의 사용 비율을 보면 이라크 파병에 비해 탄핵 사건은 1/4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일보에서는 이라크 파병에 단 8건의 ‘국론 분열’ 용어를 사용했음도 불구하고, 탄핵 사건에서는 이것의 1/2에 해당하는 양의 용어를 사용하여 탄핵 사건을 ‘국론 분열’이라고 많이 표현하였다.

중앙일보는 대북 외교와 관련된 사건에서 ‘국론 분열’이라는 용어를 9회(14.3%/63건, 42.9%/21건) 사용하여 다른 신문사들보다 많이 사용했다. 대통령 연임 개헌제에 대해서도 중앙일보는 타 신문사에 비해서 ‘국론 분열’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고, 중앙일보 내에서 사용한 빈도에 비해서도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이라크 파병에서 사용한 빈도의 38.5%에 해당). 총선에 있어서도 4회(50%/8건) 사용하여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겨레신문의 경우 ‘국론 분열’이라고 지칭된 주된 사건인 상위 세 개의 사건에서 ‘국론 분열’이라는 용어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과거사 진상규명(2회, 28.6%/7건)과 정치적 발언(2회, 28.6%/7건)에 있어서 ‘국론 분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타 신문사에서 사용한 것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일보는 4개 개혁법안(2회, 40%/5건)과 사학법(1회, 100%/1건)에 있어서 ‘국론 분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사학법 개정이 기독교 재단이 소유한 사학의 이해관계와 국민일보가 서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신문 속에서 쓰이는 ‘국론 분열’은 실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일반적 정치적 사안뿐 아니라 이념이나 외교·안보 그리고 국책 사업 등과 같은 국가 차원에서 벌어지는 사안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한국적 상황이 가지는 역사적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였다. 또한 각 신문사는 ‘국론 분열’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양적인 차이를 보이거나 서로 다른 사건을 지칭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이를 수사적으로 전략적인 사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신문에서는 ‘국론 분열’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한국의 특수한 맥락을 반영한 공통의 의미를 구성하기도 하는 동시에 각 신문사별로 각기 다른 사회적 현실을 구성해내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국론 분열’의 주체

이 부분에서는 신문에서 ‘국론 분열’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칭한 주체(agent)들을 살펴보았다(<표 6> 참조).

각 신문에서 지칭한 ‘국론 분열’의 주체는 크게 정치단체와 정부의 인물, 재야세력, 미국과 북한, 언론사 그리고 송두윳과 강정구와 같은 개인이다. ‘국론 분열’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치적 사안, 즉 ‘국정’과 밀접히 연관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정치 단체나 정부가 ‘국론 분열’의 주체로 지목된 것은 당연해 보인다. 또한 정부의 책임 관리자가 ‘국론 분열’의 주체로 지목되는 것 역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재야세력 또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국가 차원의 정치에 개입하는 이익단체로 볼 수 있다. 미국과 북한은 앞서서 ‘국론 분열’적 사건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주체들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서 개인들이 ‘국론 분열’의 주체로 지칭되었다는 점이다. 개인은 실체가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며 조직으로부터 동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을 항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명하기를 통해 소외시키기 가장 쉬우며, 대중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그리고 개인은 소외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표 6> 신문에 지칭한 ‘국론 분열’의 주체(단위, %)

주체		국민	경향	동아	세계	조선	중앙	문화	서울	한겨레	한국	계
정치 단체	정부	16 (4.5)	10 (2.8)	20 (5.7)	35 (9.9)	7 (2.0)	5 (1.4)	9 (2.6)	9 (2.6)	5 (1.4)	1 (0.3)	117 (33.2)
	정치권	11 (3.1)	15 (4.3)	16 (4.5)	29 (8.2)	9 (2.6)	2 (0.6)	6 (1.7)	9 (2.6)	2 (0.6)	1 (0.3)	100 (28.4)
	한나라당	2 (0.6)	1 (0.3)						3 (0.9)	3 (0.9)		9 (2.6)
정부 인물	노무현 대통령	6 (1.7)	3 (0.9)	6 (1.7)	13 (3.7)	9 (2.6)	13 (3.7)	11 (3.1)	5 (1.4)	3 (0.9)	4 (1.1)	73 (20.7)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				1 (0.3)			2 (0.6)				3 (0.9)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3 (0.9)				3 (0.9)
	정동영 통일부장관							2 (0.6)				2 (0.6)
재야 세력	시민단체	2 (0.6)	1 (0.3)	2 (0.6)	2 (0.6)			3 (0.9)	2 (0.6)	3 (0.9)	2 (0.6)	17 (4.8)
	보수세력		1 (0.3)									1 (0.3)
주요 국가	미국 정부		1 (0.3)				1 (0.3)	1 (0.3)	2 (0.6)	1 (0.3)		6 (1.7)
	북한			4 (1.1)								4 (1.1)
언론	KBS	1 (0.3)		1 (0.3)		1 (0.3)						3 (0.9)
	보수 언론	1 (0.3)	1 (0.3)									2 (0.6)
개인	송두율				1 (0.3)	1 (0.3)						2 (0.6)
	강정구				1 (0.3)							1 (0.3)
기타		2 (0.6)		3 (0.9)			1 (0.3)	2 (0.6)		1 (0.3)		9 (2.6)
합계		41 (11.6)	33 (9.4)	52 (14.8)	82 (23.3)	27 (7.7)	22 (6.3)	39 (11.1)	30 (8.5)	18 (5.1)	8 (2.3)	352 (100)

df=135, $\chi^2=219.901$, $P<.001$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인을 명명하는 것은 무엇보다 관심을 두고 보아야 한다.

위의 결과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개인은 바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73회, 20.7%/352건)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인으로서는 ‘국론 분열’의 주체로서 가장 많이 지칭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이외에도 정부 관련 인물로는 김병준과 유시민, 정동영이 있다. 특히 앞의 이 두 사람은 각기 교육부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로 지목이 되었을 때 ‘국론 분열’의 주체로 지칭되어 공격당했다. 이들은 각기 “‘국론 분열의 상징’으로 비쳐온 유 내정자(문화일보, 2006.02.04)”, “‘세금 폭탄’의 장본인이자 국론 분열적 발언을 쏟아낸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세계일보, 2006.07.04)”라는 식으로 표현되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정부의 핵심 인사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국론 분열’의 주체로 지칭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길 수 없다. 신문에서 정치적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개인을 하나의 주체로서 등장시키는 것은 사실 전달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하나의 수사적 효과를 유도해내기 위한 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설득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한 정향을 가지고 개인을 전면에 내세우기도 한다는 것이다. 신문은 본래 텍스트로 존재하며 하나의 서사를 간직하는 장르이다 (Van Dijk, 1988). 따라서 신문 보도는 종종 사건을 단순화시키고 서사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화(personalization) 전략을 사용한다(Brummett, 1994). 이것은 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특정한 프레임을 전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항상 공존해야 한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을 ‘국론 분열’하였다고 지칭하는 데 있어서 각 신문사는 차이를 보였다. 예컨대 조선일보(9회, 33.3%/27건)와 중앙일보(13회, 59.1%/22건), 문화일보(11회, 28.2%/39건)는 타 신문사에 비해 높은 비율로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했다. 가장 높은 빈도로 ‘국론 분열’의 주체를 지칭한 세계일보가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정부를 주체로 지칭한 것과 비교해 이들 신문들은 다른 유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 권력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닌 개인들이

신문 매체에 의해 ‘국론 분열’적 존재로서 낙인찍히는 것이다. 송두율과 강정구는 둘 다 학자이며, 정치색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권력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는 이들을 ‘국론 분열’의 주체, 즉 국가에 병이나 손실을 일으키는 존재로서 지목하였다. 이 두 명의 개인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정치적인 사안에서 충돌하는 인물들이었다. 신문에서는 이 인물들을 ‘국론 분열’의 주체로 명명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승부수 언어로는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공격하였다. 최종적으로 신문사에서 견지하고 있는 정치적 주장을 공고히 하고 이를 보다 설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하나의 개인을 소외시킴으로써 사회적 희생양을 양산한 것이다.

실제로 조선일보의 사설에서는 강정구 사건을 다루면서 맨 처음 강정구의 발언을 공격하였지만 이 발언을 구실로 현 정권,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수사권 지휘까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논지를 전개해 나갔다(남궁은정·강태완, 2006).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 개인을 명명하는 것은 하나의 집단을 ‘국론 분열’의 주체로 지칭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하나의 언론사는 사회적 체계로서 조직되고 운영되지만 하나의 개인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권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적당한 사회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구도는 한 개인에게 무조건 불리할 수밖에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의 문제 뒤에 놓인 사회적인 문제가 하나의 개인의 문제로 수렴된다는 것이다. 매체에서는 개인을 공격할 때 전략적으로 개인적인 허물을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킨다. 이렇게 해서 개인 뒤에 놓인 체계나 이념에 대한 문제는 가려지고 개인적 특성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러한 개인에 대한 공격이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그 개인이 거절되면, 그 뒤에 숨겨진 사회적 문제 또한 거절되는 수순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앞에 제시되었던 부르디외의 장이론으로도 설명 가능하다. ‘국론 분열’이라고 지칭된 개인들은 신문이라는 언어시장에서 신참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격받은 각 개인들은 기존의 신문의 장에서 존재했던 기존

행위자들의 유리한 이해 구조를 변경하고자 했고, 이러한 위치는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결코 신참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언어시장은 개인에 의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에 의해 그 역할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 주체를 지칭하는 데 있어서도 각 신문사마다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신문사들은 ‘국론 분열’의 주체를 조금씩 다르게 지칭하고 있었다. 국민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신문은 한나라당을 ‘국론 분열’의 주체로 지칭했지만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는 한 건도 한나라당을 지칭하지 않았다. 동아일보의 경우 북한을 ‘국론 분열’의 주체로 언급하였으며, 경향신문은 보수 세력을, 한겨레는 친일 세력을 ‘국론 분열’의 주체로 지칭하였다. 국민일보의 경우 KBS와 보수언론을 모두 ‘국론 분열’의 주체라고 지칭하였으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KBS를, 경향신문은 보수 언론을 ‘국론 분열’의 주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 또한 각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정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문사들은 기존의 신문 발행 관행과 내부 체계 및 관습에 의해 서로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론 분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주체들도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신문에서 지칭한 ‘국론 분열’의 주체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신문에서 말하는 ‘국론 분열’의 주체는 정치단체와 정부관련 인사, 재야세력, 미국과 북한, 언론사 그리고 개인이다. 이 중에서 개인을 ‘국론 분열’의 주체로 지칭하는 것은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지만 문제점 또한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체를 지칭하는 데 있어서도 신문사에서는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및 논의

이 논문은 신문에서 사회적인 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인

‘국론 분열’이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승부수 언어는 일종의 권력을 행사하는, 다시 말해 강력한 수사학적 기능을 하는 사회적인 어휘이다. 특히 ‘국론 분열’이라는 말은 일상적 언어 속이 아닌 신문 매체에서 사용되는 어휘이다. 그러므로 미디어에 의해 재현됨으로써 그 사회적 의미가 구성되는 측면이 크다. 따라서 승부수 언어인 ‘국론 분열’이 신문 매체를 통해 어떠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었다.

이 논문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국론 분열’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첫째는 신문 텍스트 속의 문맥에서 결정되는 의미이며, 둘째는 신문에서 다루었던 사회적인 맥락과 만나서 결정되는 의미이다.

첫 번째 차원에서는 은유와 연합을 통해 ‘국론 분열’의 의미를 파악해보았다. 은유적 의미는 두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첫째는 명사형 은유이고, 둘째는 ‘국론 분열’과 함께 쓰이는 서술어들에서 추론한 은유이다. 먼저 명사형 은유로 보면 ‘국론 분열’은 병, 재앙, 비용으로 은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서술어를 통해서도 ‘국론 분열’이 하나의 사건이나 부정적 상황으로 은유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은유되기도 했는데, 그 대처 행동을 나타내는 서술어들은 순응적이거나 수동적인 측면이 강했다. 이러한 서술어들은 명사형 은유인 병, 재앙, 비용의 의미를 더욱 공고히 해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합에 의해서 발생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았다. ‘국론 분열’과 등치되어 사용된 단어는 갈등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와 국정, 국가적 손실, 사회 문제, 이념과 관련된 단어들이었다. 갈등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은 앞의 은유적 의미와 맞닿는 부분이었다. 국정, 사회, 이념이라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문제를 나타낸다. 결국 ‘국론 분열’은 국가 차원의 정치와 위계가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국가 개념은 타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상위에 존재하기에 ‘국론 분열’이 승부수 언어로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손실이라는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들과도 동일하게 위치하고 있어 ‘국론 분열’이 부정적이고 위험하다는 감정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차원에서는 신문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맥락에서 ‘국론 분열’의 의미를 파악해보았다. 사회적 맥락으로 선택한 것은 신문에서 지칭한 ‘국론 분열’ 사건과 ‘국론 분열’의 주체였다. 먼저 ‘국론 분열’되었다고 판단된 사건은 일반적 정치 활동 및 국책사업이나 외교·안보, 이념의 문제들이 포함되었다. 이 사건은 앞의 연합의 의해서 도출된 결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텍스트 차원을 뛰어 넘어 실제 맥락 속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전반적인 정치적 문제들이 ‘국론 분열’적 사건으로 지칭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지칭된 사건이 한국의 정치적·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 사회적 맥락을 반영해 구성된 의미는 다시 각 신문사마다 차이를 보였다. 즉 각 신문사들이 지지하는 입장과 시각에 따라 ‘국론 분열’을 지칭하는 사건들이 달랐다.

마지막으로 ‘국론 분열’의 주체를 살펴보았다. 신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국론 분열’의 주체는 정치단체와 정부관련 인사, 재야세력, 미국과 북한, 언론사 그리고 개인이었다. ‘국론 분열’이 국가 차원의 정치 문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주체들은 상당 부분 정치 주체와 동일하였다. 하지만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또한 드러내보였다. 각 신문사의 정향에 따라 지칭하는 ‘국론 분열’ 주체가 서로 상이하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국론 분열’로 명명하는 것이 한국의 매체 내외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건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인 사건에 성격을 부여하는 일이다. 특정한 사건을 ‘~사건’으로 명명하느냐, ‘~사태’ 혹은 ‘~파동’ 등으로 명명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적 기억은 변화한다. 또한 사건을 규정하는 것은 해당 사건 속의 행위자들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모호한 현실을 의미 규정할 때는 각각의 담론 권력자들이 서로 상징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이다. 2005년에 발생한 강정구 사건의 경우 조선일보에서는 ‘강정구 사태’, ‘강정구 발언 파문’, ‘강정구 교수 파동’이라고 지칭하였

다. 그렇지만 한겨레신문에서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한국전쟁’ 관련 발언”,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라고 지칭하였다(남궁은정·강태완, 2006). 결국 이 사건 전체에 대한 지칭은 끝내 통일되지 않았다. 하지만 강정구 발언은 ‘6·25는 통일전쟁’이라는 말로 압축되었다(남궁은정·강태완, 2006). 이는 조선일보에서 초기에 규정한 단어이며 이미 반복적으로 사용해 대중적으로 알려진 상태였다. 한겨레는 이러한 사건 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미 이 명명화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고 사건 자체가 이것을 중심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25는 통일전쟁’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초기 단계에 이러한 방식으로 사건이 규정되면 그 후에는 이 명칭을 가지고 반박할 기회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 최종적인 논쟁의 승패가 이것에 의해 무조건 갈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논의의 장이 특정한 입장에 유리하게 설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특정한 집단에 유리하게 설정되는 구조는 각 신문사에서 ‘국론 분열’적이라고 사건을 지칭함으로써 기존 행위자와 신참자 간의 긴장 관계를 조성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를 테면 원자재 상승이나 오일 파동과 같은 사건들은 국가에 위기를 불러일으키지만 ‘국론 분열’적 사건으로 지칭되진 않는다. 이 두 가지 위치가 설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문사는 사건 규정을 통해 이 양자 중 어느 한 쪽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식으로 평가를 내린다. 그럼으로써 기존 행위자들을 위치 짓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라크 파병 이슈의 경우 ‘파병 찬성’과 ‘파병 반대’의 양측으로 위치가 나뉜다. 그런데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들(신참자들의 입장)로 인해 정부 발표가 갈등을 빚게 되고, 이러한 상황을 신문에서 ‘국론 분열’의 상황이라고 규정하면 ‘파병 찬성’을 주장했던 기존 행위자들에게 기득권을 부여하는 하나의 장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사건을 규정하는 것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간의 힘을 불균형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이 쉽게 반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치가 권력 불균형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특히 악의의 용어는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목적을 가졌을 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국론 분열’은 여기서 말하는 악의의 용어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신문사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사건들을 ‘국론 분열’로 규정함으로써 신참자들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론 분열’의 내용의 반대편에는 국론이 분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국론 통합 혹은 국론 화합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통합과 화합은 선의의 용어에 해당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모순적이면서 대비되는 두 가지의 개념이 서로 경쟁하며 논의될 수 있을까. ‘통합보다 분열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명제가 우리 사회에 통용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면 ‘국론 분열’이라고 사건을 규정하는 것이 사회적 사건을 변증계가 아닌 천상계에 속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권력의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상징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론 분열’을 일으킨 당사자를 지칭하는 것은 소외와 분리를 발생시키는 수사학적 기법이기 때문에 승부수 언어를 상당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국론 분열’의 주체들은 국가가 안전하게 유지되길 바라는 사람들에게 소외되거나 타자화되는 존재이다. 문제는 정작 소외된 주체들 또한 국가의 위험이나 손실을 바라지 않으며, 다만 이러한 욕구가 다른 식으로 표출되었을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소외되는 것이 신문 속에서 지칭된 주체들뿐만이 아니라는 점 또한 고려해보아야 한다. 공공갈등이 발생했을 때 드러나게 되는 당사자들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갈등 당사자들과 이해관계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일반 시민들이 이들을 지지함으로써 특정한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집단은 유권자일 수도 정치적 지지 집단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들은 갈등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자신의 갈등으로 체험한다(이병주 외, 2007). 따라서 타자를 소외시키는 방식은 이 주체와 유사성을 같이하는 일부 집단들을 포함해서 이뤄진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부러 조장되기도 한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타자를 소외시키고 그 외의 집단을 동일화하거나 그 동일화 수준을 공고히 하려는 데 분리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타자로 지칭되어 소외되지 않은 사람들, 혹은 현상 유지자들과 유사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문에서 ‘국론 분열’을 지칭하는 것은 하나의 정치세력화를 수반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둘 간의 갈등은 그토록 위협적인 것일까? 위의 표에서 ‘국론 분열’의 주체들을 보면 대통령, 정부, 여당, 청와대, 국회, 장관, 야당, 시민단체 등등 국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가는 일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존재의 위협성은 주로 신문 텍스트 안에서 판단이 된다. 이는 각 신문마다 국론 분열의 주체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호명하고 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론 분열’을 시키는 존재는 실제로 국가의 위협을 가져온다기보다는 각 신문이 보여주고 있는 담론의 장에 연관된 기존 행위자들에게 위협할 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존 행위자는 실체가 있는 특정한 집단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가치나 신문사의 체계 및 관행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이상으로 승부수 언어로서의 ‘국론 분열’의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승부수 언어를 파악하는 것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철저히 분석한 후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 또한 가지고 있다. 기호 자체가 모순된 의미를 배제한 채 존재하는 최상위의 서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욱 중요해진다. 승부수 언어는 설득력이 강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반드시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악의의 용어보다는 선의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승부수 언어에 의해서 자신의 주장이 수세에 몰렸을 때에는 또 다른 효과적인 승부수 언어를 창안해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승부수 언어가 강력한 수사적 힘을 갖는 것은 폐쇄성의 원리에 의한 것인데(Reboul, 1989/1999) 이는 또 다른 폐쇄성을

가진 말에 의해서 반박될 수 있다. “하나의 슬로건은 다른 슬로건을 통해서만 반박된다(Reboul, 1989/1999, p.119)”라는 말은 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만약 ‘국론 분열’이라는 승부수 언어로 공격받았을 경우 ‘국론 분열’을 운운하는 것은 ‘전체주의자’의 발상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독재나 전체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역시 배격되는 사회적 용어이기 때문에 적절히 사용된다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마쳤다. 승부수 언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는 사회적 갈등 상황을 재현하는 하나의 방식인 ‘국론 분열’ 사용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또한 이 언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4년 동안의 신문 기사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데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이 외에도 보다 많은 승부수 언어 목록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이것이 신문과 같은 매스미디어에서 구성되는 것이라면 더욱 연구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언론학 분야에는 전체적인 사건에 대한 보도 프레임을 알아보는 연구들이 활발한 반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승부수 언어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 프레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명명하기이기 때문에 미디어 재현을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용어들을 살펴보는 것은 기초적인 작업으로 수행되어야 할 분야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집합적 의미를 탐색하는 하나의 방법이자 미디어의 재현 방식을 비판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Ⅰ 참고문헌

- 김원용·이동훈 (2005). 핵폐기장 중심 원자력 관련 보도에 나타난 매체별 갈등 보도의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방송학보』, 19권 4호, 168~213.
- 김정탁 (1990). 『설득의 광고학』. 서울: 나남.
- 남궁은정·강태완 (2006). 신문 인용 보도의 텍스트 구조: ‘강정구 발언’에 대한

-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보도.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6호, 7~44.
- 남궁은정·이은영 (2006). 오류를 사용한 논증의 특징. 『국제스피치토론연구』, 4권, 129~145.
- 박영순 (2000). 『한국어 은유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박정운 (2004). 개념적 은유와 시적 은유. 『시학과 언어학회』, 7권, 117~150.
- 봉일원 (2004). 은유적 언어사용에 대하여-신문에 나타난 은유적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독일어문학회』, 26권, 273~292.
- 양정혜 (2001). 사회갈등의 의미 구성하기.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284~315.
- 유현석 (2005). 케네스 버크(Kenneth Burke)의 레토릭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1권 1호, 107~121.
- 이병주·박관영·이인희 (2007). 레이코프와 존슨의 은유 개념을 통한 프레임 분석 ‘사학법 개정’ 관련 갈등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9호, 385~462.
- 장용호 (1987). 사회운동과 언론. 『현상과 인식』, 41호, 37~72.
- 최용주 (2003). 정치적 현실구성에 관한 이론적 연구: 급진적 구성주의적 접근. 『언론과학연구』, 3권 3호, 133~162.
- 한국언론학회 (1994). 『언론학 원론』. 서울: 범우사
- Barthes, R. (1957). *Mythologies*. Lavers, A. (1972). NY: Hill and Wang.
- Burke, K. (1969a). *A grammar of motive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1969b). *A rhetoric of motive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rummett, B. (1994). *Rhetoric in popular culture*. NY: St. Martin's Press.
- Campbell, K. K. (1996). *The rhetorical act* (2nd Ed.). CA: Wadsworth.
- Fiske, J. (1990). 『커뮤니케이션학이란 무엇인가』. 강태완·김선남 역 (2001).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Hart, R. P. (1997). *Modern rhetorical criticism* (2nd Ed.). MA: Allyn & Bacon.
- Hélène, J. (1999). 『위험사회와 타자의 논리』. 박종연·박해광 역 (2002). 서울: 한울.
- Lakoff, G. & Johnson, M. (1980). 『삶으로서의 은유』. 노양진·나익주 역 (1995). 서울: 서광사.
- Pervin, L. A., Cervone. D. & John. O. P. (2005).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9th Ed.). NJ: John Wiley & Sons.

- Reboul, O. (1989). 『수사학』. 박인철 역. (1999). 서울: 한길크세주.
- Severin, W. J. & Tankard, J. W. (2001). *Communication theories Origins, methods, and uses in the mass media* (5th Ed.). MA: Allyn & Bacon.
- Smith, C. R. (2003). *Rhetoric & Human Consciousness. A history* (2nd Ed.). IL: Waveland Press.
- Tuchman, G. (1978). 『메이킹 뉴스 현대사회와 현실의 재구성 연구』. 박홍수 역 (1995). 서울: 나남.
- Van Dijk (1988). *News as Discours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Wilmot, W. W. & Hocker, J. L. (2007). *Interpersonal Conflict*(7th Ed.). New York: McGrawhill.

(투고일자: 2008.05.31, 수정일자: 2008.07.15, 게재확정일자: 2008.07.22)

A Rhetoric of Naming in Korean Newspapers

A Socio-Constructive Meaning of the 'Split of National Opinion'
As an Ultimate Term

Eun-Jeong Namgung

Doctoral Student

(Kyung Hee University)

Seong-Gene Shin

Master's Student

(Kyung Hee University)

In-Hee Lee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w the meaning of news stories covering the split of national opinion was constructed in the media to represent social conflicts. To clarify the function of the term 'split of national opinion' as an ultimate term, this study examined the meaning of the term in the context of both text and society.

Ten newspapers were included in the content analysis. The frequency of words used for the purpose of metaphor and equivalent in describing the split of national opinion was calculated to determine their meaning in the textual context. The frequency of incidents and subjects involved in allegedly causing the split of national opinion was calculated to determine their meaning in the social contex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erm 'split of national opinion' was coined by the newspapers as a metaphor of disease, disaster, and cost. The attitudes or the ways in

which the split of national opinion was dealt with were generally negative and passive. Second, the term ‘split of national opinion’ was dealt with an equivalent status of such terms as national policy, national loss, societal problems, and ideology. Third, each newspaper reported that the split of national opinion had been caused by certain subjects, which indicates that each newspaper had its own position of viewing who was the key player in splitting the national opinion.

The implication was also discussed that the use of the ultimate term would incur the unbalance of power between participants and the existing players, which would make individuals or groups who were involved in the social actions excluded and make the newspapers exercise the rhetorical power as news media.

Kew Words: ultimate term, naming, framing, media rhetoric